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서 천호성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천호성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통합 · 협력으로 전북교육 대전환”

천호성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공식 출범... 전문성 중심 인선 강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10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공식 발표하며 “갈등보다 통합, 대립보다 협력, 이념보다 학생의 성장을 우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천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인수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향후 운영 방향과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인수위원회는 특정 진영이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열린 협력기구”라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 폭넓은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천 당선인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50만8,187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신의 기쁨은 잠시였고, 당선된 순간부터 왜 교육감이 되려 했는지 교육감이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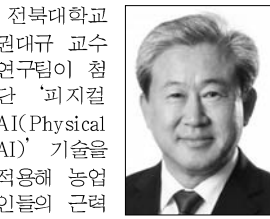
으로는 신림초 교장 최학근 예원예술대 교수, 최광수 우석대 교수 박일관 전 교육감, 김용기 전 서기관 조정현 YMCA 사무처장, 최은경 전 교장, 정성식 교사, 정재균 박사, 최정에 서기관 등이 참여한다. 천 당선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과 실적”이라며 “캠프 인사 중심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11명의 위원 가운데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한 인사는 두 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 행정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중심으로 임기 내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정리하고 전북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당선인은 인수위가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로 학력 신장과 미래역량 교육의 조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 교원 보호, 진로교육 강화, 학교 행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북교육의 핵심 방향으론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제시하며 “전북은 다른 지역을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도전과 모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전북이 교육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수위원으로 내정됐다거나 음주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인사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천 당선인은 “음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사퇴 등도 함께 고민했으나 결국 본인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인사의 향후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할 내린 바 없으며 전북교육에 가장 적합

한 인재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7월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절령준거법 사임을 바꾸기 위한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능력과 실력이 있고 성실하게 일해 온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라면서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 강화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전주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끝으로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겠다”며 “새로운 전북교육의 출발에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

전북대 권대규 교수팀, 농진청 54억원 연구사업 선정
행동 예측 기반 인공근육 슈트 개발 연구과제 수주



전북대학교 권대규 교수 연구팀이 첨단 ‘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을 적용해 농업인들의 근력을 보조하는 ‘행동 예측 기반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개발’ 연구과제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제는 농진청(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장비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30년 12월까지 총 57개월간 진행되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6억3,800만원을 포함해 총 63억7,864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현장 농작업자의 행동 패턴과 의도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 및 예측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힘을 지원하는 ‘퍼지컬 AI 기반 웨어러블 로봇 슈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단순 물리적 지지 형태를 넘어 작업자의 움직임에 동기화되는 스마트 근력 보조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고강도 반복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과제는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위드포스(주)를 중심으로 전북대산학협력단(책임자 권대규 교수)과 국립농업과학원, 군포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각 기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융합한 계획이다. 위드포스(주)는 현대포비스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챌린지’로 출범, 2023년 1월 분사한 웨어러블 로봇 전문 스타트업이다. /김재훈기자

도내 중학교 두번째 IB 월드스쿨 인증

남원 용복중, 탐구·토론 중심 교육혁신 성과

남원 용복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며 전북 미래형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남원 용복중학교가 지난 5일 국제바칼로레아본부(IBO)로부터 IB 월드스쿨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용복중학교는 전북지역 중학교 가운데 두 번째 IB 월드스쿨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용복중학교는 전북 최초의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개념 이해와 탐구 중심 학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학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토론과 논술 중심 수업을 강화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 자기주도형 맞춤 학습 전 교생 1인 1악기 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학교 측은 IB 월드스쿨 인증이 학교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교육을 통한 지역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져 남원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자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탐구하고 참여하며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명문 중학교로서 학생 주도의 탐구 수업과 맞춤형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미래형 교육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오상근기자

개념기반 탐구수업, 영양·식생활교육에 접목

전북교육청, ‘영양수업 탐구여정’ 보급... 학생 참여형 식생활교육 모델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영양·식생활교육에 접목한 자료집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전북교육청은 영양교사와 초등 수석교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영양교육 자료집 ‘영양수업 탐구여정(영양탐)’을 제작해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전북교육청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영양수업 컨설팅과 수업 나눔 활동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특히 영양교사와 초등 수석교사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영양수업 모

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고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초등 수석교사와 영양교사를 연계한 수업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적용한 영양수업 모델 개발에 집중해 왔다. 자료집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영양 지식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생활 속

식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교수·학습 방법이 담겼다. 또한 도내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이끌고 있는 정민수 김주옥 오진영, 이혜영 등이 개념기반 탐구수업 이론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통해 실제 영양수업을 운영한 교사들의 실천 사례를 함께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자료집을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해 영양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형 영양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유아 맞춤형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교육을 통해 평생 독서습관 형성과 문해력 향상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유아기 독서 경험 확대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유아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인한 유아들의 독서 흥미 저하에 대응하고, 놀이 중심 독서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2곳 등 총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선정 기관들은 지역과 기관 특성, 유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운영 과제로는 △기관별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원 독서교육 역량 강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책 읽기 활동 △책 읽기 기반 다양한 놀이 제공 △유아 독서 흥미 수준 측정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운영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돌봄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독서교육 사례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분청 7층 소회의실에서 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배경과 운영 과제, 예산 집행 기준 중간·최종 보고 절차 및 우수사례 공유 방안 등을 안내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발표

응시자 편의 확대 지원책 마련... 시험은 8월 11일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응시자 편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응시자 편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운영 과제로는 △기관별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원 독서교육 역량 강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책 읽기 활동 △책 읽기 기반 다양한 놀이 제공 △유아 독서 흥미 수준 측정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운영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돌봄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독서교육 사례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분청 7층 소회의실에서 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배경과 운영 과제, 예산 집행 기준 중간·최종 보고 절차 및 우수사례 공유 방안 등을 안내했다. /오상근 기자

응시자 편의 확대 지원책 마련... 시험은 8월 11일 실시. 산·정읍·남원·진안 등 6개 권역 가운데 희망 시험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신분증과 최종학력증명서, 여권용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 등 6개 권역에 설치된다. 시험 장소는 오는 7월 31일 오전 10시 공개되며, 시험은 8월 11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8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취약계층 응시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최대 접수처인 전주교육지원청 현장 접수장에서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서류 발급부터 원서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원 창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배치된 민원 담당자가 서류 준비가 미흡한 응시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서류 부족 등으로 접수를 포기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총 “교육감직 인수위, 현장 목소리 빠진 출범 우려”

음주 논란 인선 · 교원단체 소통 부재 지적... “현장 중심 교육행정 구조로 증명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현장 중심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새 교육감 체제가 전북교육의 안정과 회복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전북 최대 교원단체임에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북교총은 “학교 현장의 애환과 교원들의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원단체와의 소통 없이 출범

한 인수위가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인수위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당초 인수위원 명단에 포함됐던 인사의 음주 논란이 단순한 검증 미흡 수준을 넘어 인선 기준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 인사가 자진 사퇴하며 제외된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그 자체로 인선 과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검증 기준이 적용됐는지 설명하고 향후 인수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논란으로 상처를 입은 만큼 새 교육행정의 출발은 더욱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당선인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 교사 참여는 단순히 명단에 몇 명을 포함하는 형식적 수준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교실 현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총은 “새 교육감 체제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오상근 기자